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분노 범죄'...구속 송치

알바 동료 외국인女 스토킹·성범죄 '범행 제3자에 공유' 의심 살인 계획 약 30시간 쫓다 대상 바뀌 '분풀이' 광주청, 내달 15일까지 신상 공개



최근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1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장씨의 신상 정보를 이날부터 한달간 공개한다. /조영권 기자

최근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검찰에 넘겨졌다. 장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총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의 행적을 종합해 볼 때 스토킹 등 피해 여성에 대한 '계획 범행'이 여의치 않자 대상을 바꾼 분노 범죄로 결론 내렸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장씨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12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고등학생 B(17)군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살인예비 혐의가 추가된 건 장씨가 A양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전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외국인 여성 C(20대)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이와 관련, 장씨는 지난 3일 이른 오전 C씨의 집을 찾아가 교제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 함께 갔고 일정 시간 같이 있었다. 그러다 C씨가 먼저 나

가면서 장씨는 자신의 행위가 제3자에게 알려졌다는 의심을 하게 됐고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흉기를 구입한 장씨는 C씨의 집을 다시 찾아 일대를 배회했다. 그러다 이를 C씨가 보면서 112 신고가 이뤄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를 발견하진 못했다. 그렇지만 C씨에게서 폭행의 흔적이 있어 신고 의사를 물었는데, 그가 이사 계획을 밝히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했다. 또 C씨의 요청으로 그가 광주를 떠날 때까지 신변 보호를 도왔고 장씨의 휴대전화 번

호로 스토킹 범죄 경고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장씨는 문자를 받고 나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버렸고 약 30시간 동안 이미 광주를 떠난 C씨의 행방을 쫓아다녔다. 그러던 중 A양을 발견한 장씨는 그를 따라다녔고 예상 동선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흉기를 휘

둘렀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B군은 A양의 비명소리를 듣고선 도우러 갔다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됐다. 특히 해당 장소는 CCTV도 없고 유동 인구가 적었던 곳이라 A양에 대한 구조 신고는 사건 발생으로부터 30분이 더 지나서야 다른 행인에 의해 접수됐다. 5일 오전 11시25분께 택시에서 하차하다가 주거지 앞에서 검거되기 전까지 장씨는 흉기를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는데, 도주 등을 도운 공범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적을 고려할 때 경찰은 이상동기 범죄가 아니라 범행을 계획했다가, 장시간 C씨를 찾지 못하면서 생긴 분노에 대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A양을 발견하고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간격은 15분 안팎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양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것에 대해선 이렇다 할 이유를 들지 못했다. 다만, 장씨가 A양이 여자인 것을 몰랐다고 밝힌 것과 달리 복잡 등을 고려하면 해당 진술을 믿을 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장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도 흉기를 구입한 시점이 반개탐을 주문했던 것보다 먼저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광산경찰은 C씨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 제출했다가 이첩받은 스토킹과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씨에 대한 신상은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광주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안재영·이옥근 기자

'갑질 사망' 대학원생 유족, 교수·전남대 상대 손해소

소송 대리 민변 광주전남지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숨진 전남대 대학원생의 유족이 가해 교수들과 대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고인이 떠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전남대학

교는 여전히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의미를 담아 오는 15일 스승의 날에 소송을 제기한다"며 "가해교수들의 사용자인 전남대는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해 이번 소송에

서 유족을 지원한다. 지난해 7월 전남대 기숙사에서는 공과대학 석사 과정을 수학 중인 20대 대학원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학원생은 '교수들 갑질로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 교수 2명을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대는 가해 교수들에게 해고와 해임 징계를 각각 처분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의 산업 재해 신청을 승인했다. /안재영 기자

아내 놀린 청소년들 겁주려 흉기 배회 남편 '선처'

외국인 아내에게 욕을 하는 등 못살게 군 청소년들에게 겁을 주겠다고 흉기를 들고 찾아 나선 40대가 선처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해 이날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광주 모처에서 2·3분간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정상 잠작을 호소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가게를 운영했는데,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영업을 방해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외국인 아내에게 그의 모국어로 욕설을 하고 도망가기도 해 영업방해로 신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소년임을 고려해 선고를 취하했음에도, 파악질을 이어가자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들었고 가게까지 폐업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 구형량의 절반에 집행유예를 추가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